

닭고기값 1% 오를 때 삼계탕값 13% 올랐다

2011~2020년 광주지역 30대 주요 물가 변화

닭 한마리 5304원...삼계탕 1인분 1만4200원
짜장면 35% 오른 5400원...택시 기본료 1100원 ↑
하수도료 71% 오르고 쓰레기봉투 10년째 '그대로'

지난 10년 동안 광주지역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4000원에서 5400원으로 35%(140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주요 물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품목은 공공요금인 하수도료(가정용)으로, 20㎡당 4200원에서 7200원으로 71%(3000원) 올랐다.

17일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광주지역 평균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5400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 9월 4000원에 비해 35%(1400원) 상승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30개 주요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매달 시도별·품목별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8개 외식물가 가운데 10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품목은 칼국수다. 칼국수 한 그릇 값은 지난 2011년 5000원에서 올해 6800원으로 36%(1800원) 올랐다. 상승률 순으로 보면 짜장면 35%, 김치찌개 백반 31%(5400원→7100원), 냉면 22%(6400원→7800원), 비빔밥 20%(6400원→7700원), 삼겹살(200g) 18%(1만667원→1만2556원), 삼계탕 13%(1만2600원→1만42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2011년 2900원이었던 김밥 1인분 가격은 올해 2400원(1줄)로, 기준 단위 가 달라지면서 가격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물가 변동 추이

| 품목 | 2011년~2020년 | 증감률 |
|------------|-----------------|------|
| 짜장면 | 4000원→5400원 | ▲35% |
| 김치찌개 백반 | 5400원→7100원 | ▲31% |
| 냉면 | 6400원→7800원 | ▲22% |
| 비빔밥 | 6400원→7700원 | ▲20% |
| 삼겹살(200g) | 1만667원→1만2556원 | ▲18% |
| 삼계탕 | 1만2600원→1만4200원 | ▲13% |
| 닭고기 | 5233원→5304원 | ▲1% |
| 김밥 | 2900원→2400원 | ▼11% |
| 칼국수 | 5000원→6800원 | ▲36% |
| 쌀(20kg) | 4만2047원→5만6573원 | ▲35% |
| 시내버스·전철료 | 1200원→1400원 | ▲17% |
| 택시 기본요금 | 2200원 3300원 | ▲50% |
| 쓰레기봉투(20ℓ) | 740원 | - |
| 상수도료(가정용) | 8450원→1만1600원 | ▲37% |
| 하수도료(가정용) | 4200원→7200원 | ▲71% |
| 여성 미용료 | 1만1800원→1만5400원 | ▲14% |
| 드라이크리닝 | 5800원→6400원 | ▲10% |
| 목욕료 | 4700원→5900원 | ▲26% |

공공요금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품목은 하수도료(가정용)으로, 올해 20㎡당 요금은 7200원으로 10년 전보다 71%(3000원) 올랐다. 상수도료(가정용)은 20㎡당 8450원에서 1만

1600원으로 37%(3150원) 상승했다. '시민의 발'이 되어준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현금 기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200원(17%) 올랐다. 카드로 낸다고 가정할 요금은 1250원으로, 10년 전(1100원) 보다 150원(14%) 상승했다.

성인 전철료는 1200원에서 1400원으로 200원(17%) 상승했고, 택시(중형) 기본요금은 2200원에서 3300원으로 50%(1100원) 올랐다. 쓰레기봉투(20ℓ) 값은 740원으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개인서비스 요금 가운데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은 미용료였다.

올해 머리카락 한 번 자르는 데 드는 여성 평균 미용료는 1만5400원으로, 10년 전 1만1800원보다 31%(3600원) 올랐다.

남성 성인 이용료는 8800원에서 1만1400원으로 30%(2600원) 상승했다.

가장 요금이 오르지 않은 품목은 세탁료였다. 10년 전 5800원이었던 신사복 상하 드라이크리닝 비용은 올해 6400원으로 10%(6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1박하는 데 드는 비용은 2만74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24%(6600원) 올랐다. 올해 성인 대중탕 이용요금(목욕료)은 5900원으로, 2011년(4700원) 보다 1200원(26%) 상승했다.

쌀 20kg 한 포대값은 4만2047원에서 5만6573원으로 35% 올랐고, 닭고기(1마리) 가격은 5233원에서 5304원으로 단 1%(71원) 오르는 데 그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 2539.15 (-3.88) |
| ↓ 코스닥 | 839.47 (-7.86) |
| ↓ 금리(국고채 3년) | 0.960 (-0.010) |
| ↓ 환율(USD) | 1106.60 (-2.70) |

아시아나 구조조정 당장은 안한다지만...

내년 4월초까지 '고용 90%'

대한항공이 인수를 추진하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4월 초까지 고용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달 24일 기간산업안정기금 2400억원을 지원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에는 6개월간 최소 9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 수는 각각 1만8000여 명, 9000여 명이다.

한편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은 이날 산업은행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에 착수했다.

한진칼은 이날 산업은행과 신주인수계약(신주인수대금 5000억원) 및 교환사채 인수계약(3000억원)을 통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조달받는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 /연합뉴스

무안공항 환전 '비대면'

농협은행, 외화ATM 설치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무안국제공항에 외화ATM(자동화기기)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안국제공항 2층 NH농협은행 환전소에 설치되는 외화ATM은 국제선 운항을 대비해 시범 운영하고, 재 개항 때 고객에게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예정이다.

외화ATM은 환전소를 통하지 않고도 연중 무휴로 달러, 엔화, 위안화 환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른 아침이나 밤늦은 시간에 국제선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설치된 외화ATM은 현금카드·동전을 통한 환전뿐만 아니라 올원뱅크(농협모바일 플랫폼)로 신청한 환전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고, 일반 외화ATM의 모든 업무도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전남도 관광사업 활성화 및 무안국제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안국제공항 1층에도 외화ATM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남 절임배추' 사전예약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하1층 푸드에비뉴 식품관로 결푸드매장에서 광주·전남에서 생산된 각종 김장재료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해남 황토밭에서 재배하고 신안 천일염으로 절인 '해남 절임배추'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강지숙 대표 김형범 대표 김형순 대표 박철홍 회장 최승곤 회장

광주상의 '광주상공대상' 수상자 선정

기술혁신 등 5개 부문

광주상공회의소는 17일 '제8회 광주상공대상' 5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영우수부문에 박철홍 보광종합건설(주) 회장, 고용우수부문 김형범 다목적주택 대표이사, 기술혁신 부문 최승곤 남양에스티엔 회장, 지역공헌 부문 강지숙 한성폴드 대표이사, 노사 상생 부문은 김형순 (주)해양에너지 대표이사 사장이 선정됐다.

박철홍 회장은 30여 년의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주거지원과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왔다.

김형범 대표이사는 연간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무재해 사업장 구축을 달성했고, 최승곤 회장은 광주와 인근 지역의 버스정보시스템 개발로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강지숙 대표이사는 지역 패블 산업을 선도했으며, 김형순 사장은 노사 신뢰와 화합으로 무분규·무쟁의 사업장을 만들었다.

광주상의는 우수기업 모범근로자로 금호타이어 조기철 차장 등 12명도 선정했다.

시상식과 모범근로자 표창은 오는 19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엔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이진 장편소설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품중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